

노인을 위한 은퇴농장의 가능성



황진수 교수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1. 머리말

노인을 위한 은퇴농장에 관한 몇 가지의 질문을 하고자 한다. 노인들에게 농촌생활은 장수를 보장할 수 있는가. 노인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농촌에 기거하는 노인들이 갑자기 병이 생겼을 때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의료대책이 가능한가. 농촌이주 노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도시에 거주했던 노인들이 농촌에 이주하면서 정서·의식, 문화·의식 등이 농촌노인들과 동화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농촌에 거주하면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멀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농촌으로 이주한 도시인들이 가끔 겪는 도둑의 예방은 가능한가. 공동체 농장에서 수확한 농산물에 대한 판매이익 또는 분배 과정에서 불만이 생길 소지는 없는가. 마지막으로 도시거주 노인을 농촌으로 이주시켜 노동력보장 내지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농림부,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

현재의 우리나라 노인들은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절을 보낸 분들이다. 일제시대에 태어나 꿈 많

고 희망 많던 젊은 시절을 우울하게 보냈고 일부는 일제 징용에 끌려갔고, 일부 여성들은 정신대에 가서 고생을 한 사람들이다. 6.25전쟁이 터졌을 때는 직접 총을 들고 싸운 세대이며, 대부분 사람들은 가족을 이끌고 남으로 피난을 한 계층이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폐허가 된 이 나라를 건설한 역사의 주역들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잘 교육시키면 늙어서 효도 받을 것이라 믿고 당신들은 먹지도 입지도 못하면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바친 세대이다.

현재의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지식은 대부분 농업이다. 땅에서 태어나, 땅에서 일을 하다가 땅에 묻힌다는 철학을 몸에 지닌 지극히 순박하고 순응만을 해온 사람들이다. 따라서 현재의 노인은 급변하는 산업사회, 정보사회에는 눈이 어둡지만 농업만큼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권위자들이다. 봄이면 무슨 씨앗을 언제 어떻게 뿌리고, 농토가 적을 때는 적은 대로, 많을 때는 많은 대로 농사방법을 몸에 체득한 사람들이다. 여름, 가을이 되면 시계가 시간을 가리킬 때처럼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다.

여기에서는 노인을 위한 은퇴농장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몇 개의 지표로 구성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점은 보건복지부, 농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도시노인의 농촌정착을 위한 정책의 시행전략의 하나일 수도 있다.

2. 도시인을 위한 은퇴농장의 관계모형

Chaskin(2001)은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관계모형(A Relational frame work Community capacity and capacity building)에서 몇 가지의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개인의 기술, 조직의 장점을 어떻게 살리며 재정적 자원에 대한 접근과 같은 자원이 존재하는가. 둘째, 커뮤니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정서적, 수단적 관계의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는가. 셋째, 마을의 리더십이 존재하며 리더십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하고 있는가. 넷째,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문제해결에 참여하기 위한 지원, 예를 들면 행정적, 재정적, 정서적 지원이 가능한가를 들고 있다. 하드웨어(Hardware)에 대한 역량강화, 자원개발활동, 지원응용전략, 문제해결능력이라는 소프트웨어(Software)가 다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사람은 재산, 집, 농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방법이나 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세 가지 차원에서 농촌에 이주하고자 하는 은퇴농장의 성공요소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사회적 주체의 정책 수립과 농촌으로의 유인가능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의 은퇴농장 조성정책이 우선 정부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보건복지

부와 농림부가 별도의 계획에 의해 별도의 창구를 가지고 은퇴노인을 농촌에 이주시키려는 정책은 우선 정부간에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책이 행정부가 각자 일을 추진해 놓고 나서 예산, 인력 등을 보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이 문제는 정부 간의 협의를 거쳐 국가의 정책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정책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적 합의(Consensus)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노인들을 위한 진정한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델이 농촌으로 이주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는 국가와 사회의 의견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는 은퇴노인들이 농촌에 이주 했을 때 농촌에 있는 농지, 가옥, 기타 재산관계에 관한 사전준비는 철저하게 되어 있는가. 셋째, 농촌에 이주 했을 때 매일 만날 수 있는 주민과 마을의 공식적, 비공식적 조직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넷째, 농촌의 은퇴농장이 도시노인이 쉬기 위해 오는 별장이 아니다. 도시에서 이주한 노인들이 마을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를 고심해야 한다. 다섯째, 마을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정서에 출신 지역이 다르고, 계층이 다르고, 직업이 다 달랐던 노인들이 그 마을의 정서를 이해하고 쉽게 동화 될 수 있는가 등이다. 이러한 요소에 대한 것은 처음부터 치밀한 기획을 수립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또, 지구적 차원에서 관? 민 그리고 사회? 농민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촌이주노인에 대한 농촌지역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화와 서비스생산에 관하여서도 많은 자문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2) 농촌이주 노인들의 성공을 위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

전략(Strategy)이란 어떤 흐름 속에서 나타난 하

나의 양상으로 예를 들면, 병력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운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대개는 자원배분에 관한 것, 주민들 또는 이주자끼리의 친밀도, 가정적, 개인적 정서 및 주거의 안정성 그리고 질병, 사고, 도둑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등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리더십이 필요하다. 기존 농촌마을의 지도자, 이주해 온 조직의 지도자, 새마을 지도자, 이장을 비롯한 행정적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비공식자,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전문가까지 포함한 확고한 지도력이 존재 하는가 이다. 지도력이 어떠한가에 따라 마을 전체가 행복해질 수고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둘째, 발전할 수 있는 조직의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다. 조직이라는 것은 삶의 터전이다. 인간은 조직 속에서 태어나고 조직 속에서 살다가 사망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조직의 견고함과 활성화는 조직원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거꾸로 조직원의 능동적 역할은 조직에 새 기운을 넣을 수 있다. 농촌생활에 있어 조직의 활성화는 공동체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유토피아 같은 것이 아닐 수 있다. 또 조직 구성원마다 자라나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므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조직은 순수한 동기부여와 함께 부락회의, 계모임 같은 공식적, 비공식적 절차를 중요시해야 한다. 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 자치단체는 공식적인 지원을 해야한다.

셋째, 도시노인들이 농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직업훈련이란 농사에 관한 기본지식, 농촌에 해한 이해, 농사작법에 대한 기술적 사항에 이르

기 까지 직업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직업교육은 농업기술자협회 차원에서 가능할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에 스스로 참여하는 구성원의 자발적 헌신이 필요하다. 은퇴노인이 농촌에 정착했다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노인 스스로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고 협조하는 의식의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노인의 성격은 다양하다. 성취형, 은둔형, 자학형, 방어형, 분노형(Reicard의 분류)으로 나누고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성격은 성취형으로 이웃과의 관계, 자녀세대와의 관계도 원만하고 스스로 자신의 일을 알아서 하며, 남에게 봉사하는 자세가 있는 노인을 말한다. 가장 위험한 노인 성격은 분노형으로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이 누구 때문이다.」하면서 자식, 부인, 동네사람들에게 수시로 분노를 일으키는 성격이다. 이런 성격을 가진 노인이 몇 사람만 있으면 조직은 결속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은퇴농장을 위한 지역공동체는 가능한 한 발전 가능한 역량을 구비해야 하고, 의도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3) 공동체 생활의 성공을 위한 자원 활용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 활용이란 공동자원, 사회자원, 개인자원 모두를 말한다. 또 자원이란 인적자원, 물적자원을 포함하며, 인적자원이란 농촌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인사, 구성원이 알고 지내는 유력인사나 언론기관의 인사 등도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삶의 질이 추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문제해결능력이 있어야 한다. 농촌지역도 사람 사는 곳이라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측면의

활용과 인간적 측면을 배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한다면 봉사하는 정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사회에 대한 봉사, 젊은 세대를 위한 희생, 과거의 지위나 명예를 고려하지 말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를 위한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3. 결론

지금으로부터 100년의 우리나라 노인들은 유교라는 틀을 배경으로 하여 효사상, 경로효친, 삼강오륜을 전제로 가부장적 권위를 누렸다고 볼 수 있다. 또 우리가 죽고 나서 100년 후에 이 땅에 살고 있을 미래의 노인들은 서구식의 경험주의, 실용주의 속에서 삶의 질을 향유할 지도 모른다. 과거와 미래의 중간지점인 오늘날 우리나라 노인들은 동양적 가치관도 아니고 서양적 물질주의도 아닌 어중간한 시점에서 정신적 지주를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 그렇다고 복지제도의 혜택도 없다. 자녀들로부터 따뜻한 효도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오늘날 노인들은 인생의 생로병사(4혹)이외에 빈곤, 질병, 고독, 역할의 상실이라는 4가지 고통을 더하여 8고를 지니고 사는 세대이다. 이런 노인들의 처지를 생각하여 최근 농촌으로 노인을 유인케 하여 공동체생활을 영위케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정책대안을 내놓고 있는

데 여기에서는 그 가능성과 충족해야할 요건을 정리해 보았다.

여기에서 노인이 공동체생활에 지켜야 하는 4사 운동을 정리해 본다. 첫째, 인사(人事)이다. 인사는 노인들이 젊은 사람에게서 일방적으로 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해야 한다. 둘째, 봉사(奉仕)이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는가. 힘이 닿을 때까지 봉사해야 한다. 논어에 積善之家必有餘慶(적선지가필유여경: 남을 위해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집)은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라는 말이 있듯이 봉사는 자신 또는 자식의 경사가 될 수 있다. 셋째, 감사(感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큰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평소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있다. 넷째는 희사(喜捨)하는 마음이다. 절이나 교회에 희사하는 것 뿐 아니라 재산이나 장기기증 같은 희사정신도 필요하다. 농촌은 우리의 고향이요, 마음이며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 이 농촌에 누구인들 가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노인이 농촌에 살기 위해서는 노인은 물론 전 국민에게 매력 있는 삶의 장소로 만들어야 할 것이며 그런 파라다이스는 국가, 사회, 개인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